투어 번호
LKHAMEV3AT

진주 주변 트레일(21일)

15일 · 14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21일 루트는 서쪽 해안의 공항 근처에서 시작하여 문화 삼각지대의 고대 도시들을 거쳐 차 재배 고지대로 올라가고, 힐 컨트리 기차선을 따라 엘라로 내려간 후 얄라 주변의 건조 지역 사파리 국가로 가며, 마지막으로 갈레의 남쪽 해안에 도달하는 스리랑카 전역을 가로지르는 루트입니다. 짧은 여정들의 연결이 아닌 하나의 지속적인 육로 트레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에서 서너 밤을 묵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 서둘러 지나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섬의 진정한 다양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고보의 해변과 어항, 시기리야의 암석 요새와 담불라의 동굴 사원, 폴론나루와의 폐허 도시, 캔디의 치아 사원과 보태니컬 가든, 누와라 엘리야의 차 농장과 시원한 기후, 엘라로 가는 경치 좋은 기차 여행, 얄라 국립공원의 지프 사파리, 갈레 주변의 식민지 요새와 해안선. 도중에 코끼리 고아원, 향신료 정원, 운영 중인 차 공장, 시기리야 근처의 마을 체험(소 마차 탈기와 집에서 만든 점심 포함)에서 멈춤니다.

일정은 거리보다 깊이를 우선하며, 담불라와 갈레 주변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지속적인 이동이 아닌 한 기지에서 여러 개의 분리된 여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행과 관광은 차량 운전사 겸 가이드와 함께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여행객들이 자신들이 직접 후물류를 관리하지 않고도 풍경, 역사 및 야생동물을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네곰보 (1~2일차)

여행은 서부 해안의 네곰보에서 이틀간 머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공항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 시내 투어를 즐기거나 그냥 해변에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곰보 시티 투어

네곰보는 황금빛 모래 해변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어업으로 유명합니다. 방문객들은 수상 스포츠를 즐기거나 다이빙을 통해 산호와 바다 생물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해안 바로 앞바다에는 다양한 어종의 서식지가 된 50년 된 난파선도 볼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3 담불라 (3~6일차)

담불라를 중심으로 한 4일 동안은 문화 삼각지대의 핵심을 둘러보게 됩니다. 코끼리 고아원, 석굴 사원, 암석 요새, 마을 체험, 그리고 섬의 대표적인 고대 유적지와 야생 동물 보호구역 두 곳을 방문하며, 하루는 호텔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습니다.



피나왈라 코끼리 고아원

사바라가무와 주의 피나왈라 마을에 위치한 이곳은 서식지를 잃거나 길을 잃은 어린 코끼리들을 돌보는 보호소입니다. 약 70마리의 코끼리가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코끼리 사육 시설이며, 코끼리들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담불라 석굴 사원

담불라의 황금 사원은 기원전 1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고타마 부처의 생애를 그린 고대 벽화와 수백 개의 불상 및 신상들을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걸쳐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왕의 동굴과 대왕의 동굴이 포함됩니다. 석굴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시기리야 암석 요새

기원후 5세기에 지어진 이 암석 요새는 한때 카샤파 왕이 통치했던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기단부의 사자 발 모양 입구 때문에 '사자 바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방문객들은 잘 보존된 벽화를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계단식 정원과 고대 스리랑카의 수력 공학 기술을 보여주는 여전히 작동하는 저수조에 도달하게 됩니다.

Wrobell · CC BY-SA 3.0



시기리야 마을 투어

마을 체험에는 소달구지 타기, 고요한 호수에서의 카타마란 사파리, 황금빛 논을 가로지르는 산책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통 요리 시범과 장작불로 조리해 연잎에 담아내는 가정식 점심도 즐길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민네리야 국립공원

민네리야 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사파리에서는 많은 수의 코끼리들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5월부터 10월 사이에 열리는 '위대한 코끼리 모임' 기간에는 150마리 이상이 모이기도 합니다. 공원은 관목지와 숲 전역에 걸쳐 다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고대 왕국 폴론나루와

폴론나루와는 기원후 10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번성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주요 수도였습니다. 유적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갈 비하라, 바타다게, 연꽃 욕조, 랑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왕국의 황금기로 여겨지는 치세를 이끈 파라크라마바후 왕과 관련된 조각상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7 담불라 → 캔디 (7~8일차)

여정은 고지대 수도인 캔디로 계속되며, 가는 길에 향신료 농장에 들렀다가 도시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사원과 식물원을 방문합니다.



향신료 농장

유포리아 향신료 및 약초 농장은 스리랑카 향신료의 수도로 불리는 마탈레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열대 기후 속에서 향신료와 약초의 자연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재배합니다. 가이드 동반 투어를 통해 이러한 식물들의 용도와 아유르베다의 원리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불치사 (불치 사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이 사원은 부처의 신성한 치아를 보관하고 보호하기 위해 16세기에 세워졌습니다. 내부 통로와 홀은 빨강, 크림, 검정색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곳곳에 조각된 기둥과 황금 조각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A.Savin · FAL



왕립 식물원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은 19세기 초에 조성되었으며,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 이상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포알 나무, 현수교, 생울타리 미로, 그리고 희귀한 대형 나무들이 늘어선 길도 볼거리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9 캔디 → 누와라엘리야 (9~10일차)

중앙 고지대의 누와라엘리야로 이동하는 날에는 폭포와 차 공장을 둘러본 뒤 마을 자체를 투어하게 되며, 선택 활동으로 호튼 플레인스 트레킹도 가능합니다.



람보다 폭포

람보다 폭포는 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입니다. 이날은 그늘진 산책로가 있는 학갈라 식물원과 그레고리 호숫가를 따라 걷는 산책도 포함됩니다.

A.Savin · FAL

차 공장

이 차 공장과 플랜테이션에서는 실론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1824년 왕립 식물원에 차나무가 처음 들어와 심어진 데서 시작된 전통입니다. 1852년에 도착해 캔디의 룰레콘데라 농원에 정착한 영국인 농장주 제임스 테일러가 이 섬에 상업적 차 재배를 도입했습니다.



안개 도시 누와라엘리야 둘러보기

해발 약 6,200피트의 차 재배 지대 중심에 자리한 누와라엘리야는 영국 전원 지방의 양식으로 지어진 마을로, 조지안 및 퀸 앤 양식의 주택들, 잘 손질된 잔디밭, 성공회 교회, 골프 코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도 덕분에 공기는 서늘하고 상쾌합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호튼 플레인스

오히야 근처에 위치한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은 고산 초원과 운무림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절벽, 시원한 물보라가 이는 베이커스 폭포, 그리고 이 평원에서만 발견되는 여러 고유종들이 특징입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Day 11 누와라엘리야 → 엘라 (11~12일차)

차 공장을 한 번 더 방문한 뒤, 여정은 난우오야에서 엘라까지 섬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기차 노선 중 하나를 따라 이어지며, 이후 엘라에서는 자유 시간을 가집니다.

차 공장

이 차 공장과 플랜테이션에서는 실론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1824년 왕립 식물원에 차나무가 처음 들어와 심어진 데서 시작된 전통입니다. 1852년에 도착해 캔디의 룰레콘데라 농원에 정착한 영국인 농장주 제임스 테일러가 이 섬에 상업적 차 재배를 도입했습니다.



경치 좋은 기차 여행

난우오야에서 엘라까지 이어지는 기차 여정은 고산 지대를 지나며 차밭, 안개 낀 산악 풍경, 그리고 하푸탈레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내려가는 동안 산과 숲, 폭포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Chamal N · CC BY-SA 3.0

Day 13 엘라 → 얄라 (13~14일차)

엘라에서 저지대로 내려가면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이 있는 얄라 지역에 도착하며, 이곳에서 지프 사파리를 즐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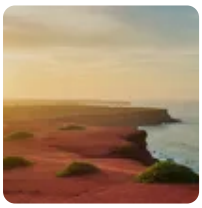
얄라 국립공원

이 세 시간짜리 사파리는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인 얄라를 탐험합니다. 공원에는 스리랑카 표범, 야생 물소, 스리랑카 나무늘보곰, 대규모 코끼리 무리를 비롯해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15 갈레 (15~20일차)

마지막 일정은 남부 해안의 갈레 주변에서 보내며, 해안 자연 명소, 언덕 위의 랜드마크, 그리고 옛 식민지 시대의 요새 도시를 방문하고, 출발 전 해변에서 여유를 즐길 시간도 가집니다.



우상고다 해변

우상고다는 나무가 거의 없는 독특한 해안 지역으로, 이는 독성 중금속을 함유한 뱀무늬 암석 때문에 특정 소형 식물만이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라마야나와 관련이 있으며, 이 황량한 풍경은 하누만의 불타는 꼬리, 그리고 라바나 왕이 이 고원을 자신의 전차 착륙지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루마살라

갈레에서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루마살라 언덕은 정상에 하얀 불교 다고바가 자리하고 있으며, 우나와투나 해변의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하누만이 떨어뜨린 드로나기리 산의 한 조각이라고 전해지며, 시타가 랑카에 머물렀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옛 식민지 도시 갈레

갈레 요새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모두의 본거지였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에는 박물관, 등대, 그리고 네덜란드식 이름이 붙은 자갈길들이 있어 둘러볼 거리가 풍부합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